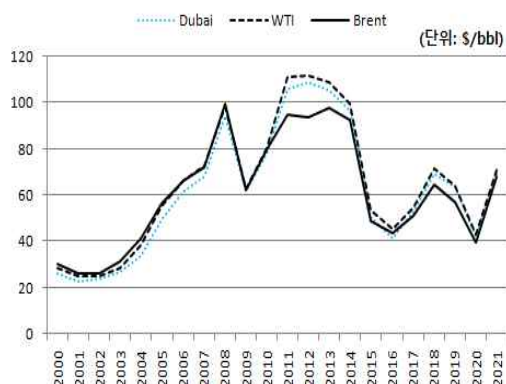


국제유가 및 해외건설 발주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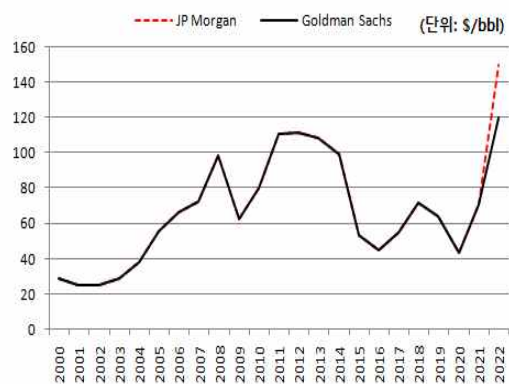
□ 유가 변동성 확대

- 2021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병목현상과 소비 전망이 상향되면서 2022년 초반부터 실질적인 **고유가 추세**(환율 상승기에 유가 상승 추세)로 전환
 - * WTI 가격: '22.1.3일(76.1 \$/bbl) → 5.3일(102.4 \$/bbl)
 - ** 원-달러 환율: '22.1.3일(1,193.5 KRW/\$) → 5.3일(1,267.5 KRW/\$)
-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풍토병으로 취급되면 여행제한 해제 등으로 **석유소비 급증 전망**
 - * 2021년 12월 Goldman Sachs에 의하면, 2022년 세계 각국이 국경 문을 다시 열면서 항공 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유 수요가 늘어 배럴당 100\$ 이상 전망
- 러-우크라이나 및 대만해협 무력 충돌 가능성 등 **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도 국제유가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**
 - * 2022년초 JP Morgan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갈등이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가 2022년 1분기에 배럴당 150\$ 가능성 시사
- 오일 메이저사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**기존 자산 매각을 비롯해 향후 신규투자 정체가 전망됨에 따른 유가 상방압력 가중**
 - * 파이낸셜타임스(FT)에 의하면, 에너지 전환시대에 대비코자 글로벌 석유 기업은 약 1,400억불 규모의 자산 매각 중

- 국제유가 추이(유종별) -



- 주요 기관별 WTI 상단 전망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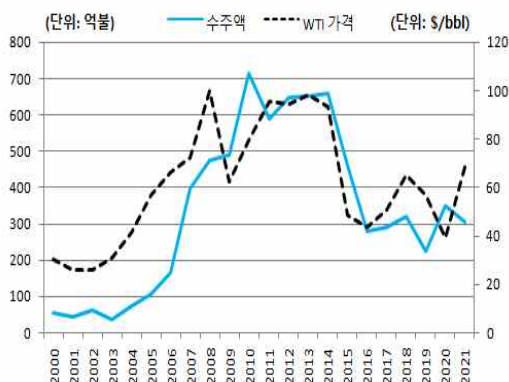
* 출처: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(<https://www.petronet.co.kr>), 언론보도자료

- 하지만 글로벌 금융권에 따르면, 2022년 하반기부터 공급 병목현상 해소 및 OPEC+의 점진적 석유 공급확대 시, 유가는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
 - * EIA(美 에너지정보청)와 9개 주요 IB들의 WTI 전망치 중간값 : 1Q \$78 → 2Q \$76 → 3Q \$74 → 4Q \$71

□ 중동 산유국 발주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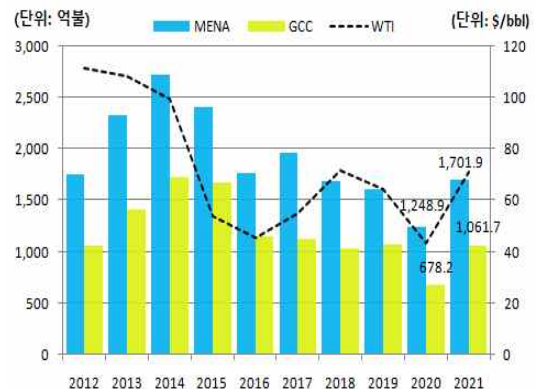
- 해외건설 수주와 국제유가간 밀접한 상관관계
 - 2000~2020년간 WTI 가격과 해외건설 수주액간 상관계수는 0.84로 유가 상승은 해외건설 수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
 - 2020년 유가 급락은 산유국 재정상황에 큰 타격을 준만큼 당분간 영향권에 있을 가능성 주목 필요
- 유가회복에 따른 중동 발주 물량 개선, 해외건설 수주에 긍정적
 - Meed Projects(2.18일 기준)에 따르면, '21년 GCC* 발주물량은 약 1,060억불로 전년 대비 56.5% 증가했으며 MENA(Middle East & North Africa) 발주규모도 1,700억불을 상회하면서 2018~2019년 수준 회복
 - * GCC: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사우디, UAE, 쿠웨이트, 카타르, 오만, 바레인으로 구성된 걸프 아랍 국가의 국제 경제 협력체
 - 하지만, 중동 주요 국가들은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지난 5년간 재정적자 심화로 인해 직접 지출보다 PPP 프로젝트 발주 확대 추세
 - * Meed에 의하면, 2028년까지 1,350억불(전력 36%, 교통인프라 24%)규모의 PPP 프로젝트 발주가 전망되고 있으며 사우디가 가장 큰 400억불 수준으로 나타남

- 연도별 유가 및 해외건설 수주 추이 -



* 출처: 해외건설DB 및 EIA(미국 에너지청)

- 연도별 유가(WTI) 및 중동지역 발주규모 추이 -



* 출처: Meed Projects DB 및 EIA